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환영사

2018. 12. 4 (화) 10:10~10:20

포시즌스 그랜드볼룸 (3F)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용 범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먼저,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해외 15개국 금융당국, 금융 유관기관과
IMF, WB, UN ESCAP(에스캡)* 등 국제기구 관계자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역대 최대의 규모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하 후이 뚜언(Ha Huy Tuan)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님,
부 띠 찬 프엉(Vu Thi Chan Phuong)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멀리서 이번 포럼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의장님,
그리고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II.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의 중요성

내외 귀빈 여러분,

국제금융협력포럼은
각국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시장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입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과 금융의 결합인
핀테크로 인해 금융부문의 혁신이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핀테크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번 포럼 주제를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으로 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7억명의 성인 인구가
은행계좌가 없으며,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입니다.

그러나, 이중 11억명이 모바일폰은 가지고 있어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핀테크의 역할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케냐의 결제·송금 핀테크 서비스인
엠페사(M-Pesa)^{*}를 들 수 있습니다.

* 모바일(M) + 머니(페사, 스와힐리어)

엠페사는 지난 10년간
케냐 인구의 80%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하면서
지급결제 부문에서 현금없는 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알리페이^{Alipay}의 경우
축적된 지급결제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개인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예치금을 단기금융상품(MMF) 등에 투자하는 등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금융에 있어에서도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중소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연결되는
저비용의 자금조달 방식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는데
이미 핀테크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 G20 정상들도

금융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 Recognising the ongoing work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GPFI), we promote better access to financing, technology, and training facilities that help improve the capacit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integrate into sustainable and inclusive global supply chains.

※ GPFI에 의한 디지털 금융포용을 위한 상의원칙 주요 내용

- ① 금융포용을 위해 국가전략수립·평가시 디지털 접근 적극 활용
- ② 디지털 금융포용을 위한 혁신(innovation)·위험(risk)간 균형배분
- ③ 디지털 금융포용 관련 규제(legal & regulatory framework) 재정비
- ④ 디지털 금융서비스 인프라 생태계 촉진
- 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금융 가이드선 마련
- ⑥ 디지털 금융 관련 교육(financial literacy) 강화
- ⑦ 소비자 구분(customer identification)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
- ⑧ 디지털 금융포용 진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Ⅲ. 핀테크 발전을 위한 국가간 공조 필요성

내외 귀빈 여러분,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이를 통해 금융포용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핀테크 산업에 적합한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금융법 체계는
규정중심(Rule-based)의 법체계로서
은행, 보험, 증권 등 기존 금융업권을 중심으로 마련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기존의 규제에 막혀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적합한 '규제의 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현재 특별법 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여
연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영국, 싱가포르 등 원칙중심(Principle-based) 권역에서
널리 활용되는 규제 샌드박스가
규정중심(Rule-based)의 법률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가
동아시아에 건너와
아시아의 법적 전통에 맞게 재탄생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적 설비, 인력 등 비용에 대해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과
예산 지원을 통해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퀀텀점프(Quantum Jump)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의 제도와 다양한 운영 사례를
다른 국가들과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활발한 정보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금융부문의 혁신이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핀테크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간에도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는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의 금융당국과
핀테크 MOU를 체결하여,

핀테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을 교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핀테크 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레퍼럴 메카니즘(Referral Mechanism)*을 도입하였습니다.

* 해외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추천(Referral)을 통해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받음

또한, 해외에서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한국의 우수한 핀테크 기술과 서비스를 알리고
현지에서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산업 발전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핀테크의 분산화, 고속화, 비대면화된 특성으로
금융부문에 미치는 충격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원인과 해결방법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외화송금, 가상통화 거래 등은
전 세계적으로 국경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말 한국은 가상통화과 관련하여 Bloomberg가
“ground zero for the global crypto-mania.” 라고
언급할 정도로 거래가 과열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시장과열,
자금세탁,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책적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FSB 등 국제금융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논의 과정에서
국제 동향을 신흥국과 적극 공유하고,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V. 맺음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핀테크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이 포럼이

한 국가 내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고,
각 국가간에는 핀테크 협력을 강화시켜
긴 여정을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상생번영(Prosperity)의 길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추운 겨울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